



2차 공공기관 이전 '배수진'

이원택 도지사, “더 이상 소외 안된다… 단식 투쟁이라도 할 각오” 총력전 선언
“금융·농생명·미래산업, 정부 집적 배치 원칙에 가장 부합… 균형성장 출발점”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전을 선언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사진)는 21일 도청에서 “더 이상 전북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발표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북이 정부가 제시한 ‘기능 연계 및 산업·기능별 집적 배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고, 농생명 분야는 농촌진흥청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1차 이전을 통해 구축된 집적 기반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퍼지컬AI 등 미래 첨단산업과의 연계까지 가능한 곳이 전북”이라며 “이는 다른 지역이 대체하기 어려운 전북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평진원(KIAT), 국



이 전북의 농생명·첨단산업·에너지 기반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기관 하나하나가 전북의 산업 지도와 맞물린다”며 “전북 이전은 특정 지역을 챙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을 가장 크게 살릴 수 있는 국가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낳은 불균형의 그늘을 전북만큼 오래 깊게 겪어온 지역은 드물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성장이 진정성을 가 지려면 이번 2차 이전에서 전북이 제

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전북은 혁신도시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했고, 2차 이전은 그 성과를 완성하는 단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임직원과 가족의 정착으로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 지방세수 확충 등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를 모으려는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전북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전북은 늘 뒷순위에 있었고 도민들은 오랜 세월 소외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전북이 당당한 주역으로 설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전북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 발표 전까지 172만 도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시원한 물줄기



연이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전주시 세병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올해 임실N치즈축제 ‘확 달라진다’

기존 치즈테마파크서 임실읍내로 개막식 장소 옮겨

지역상권·주민소득·관광시너지까지 ‘1석 3조’

체험형·글로벌·야간 콘텐츠 대폭 확대 ‘재미 UP’

국내 유일의 치즈축제인 ‘2026 임실 N치즈축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축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축제개최를 임실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특히 군은 최초로 치즈축제 개막식 장소를 기존 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읍내로 전격 옮겨, 지역상권과 주민소득, 관광시너지까지 노리는 1석 3조 소 이상의 실험적 축제 개막 시도에 나서면서 지역전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망이다.

군은 최근 한독수 군수 주제로 축제 제전위원회, 축제 대행사, 관제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실N치즈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대표 치즈 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적인 콘텐츠와 운영전략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 행복을 늘린다!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축제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제를 목표로 추진된다.

축제장과 시내권을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해 지역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올해 축제는 기존 치즈테마파크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축제공간을 임실을 시내까지 확대하고, 관광객 소비가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는 경제형 축제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식을 임실을 시내관에서 개최하고, 치즈테마파크와 시내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원화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전 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등 지역상권을 자연스럽게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제의 성공을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주민 체감형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군의 구상이다.

또한, 축제콘텐츠도 대폭 새로워진다.

기존의 관람 중심 프로그램은 과감히 줄이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형·글로벌·야간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축제의 재미를 한층 높인다.

치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유청을 활용한 △유청 족욕 힐링체험, 수십 미터 길이의 △대형 릴레이 치즈샌드

위치 만들기, 유유 거품 속에서 황금 치즈를 찾는 △밀크버블 페스티벌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실 치즈 와인&나이트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여 낮뿐 아니라 밤에도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임실N치즈 북음반 퍼포먼스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치즈요리 경연대회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함께, 프리미엄 저지종(Jersey) 속성치즈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무가당 요거트 시식·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축제장을 수놓는 천만송이 국화와 유럽형 장미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하고, 맞춤형 임실 한우와 읍·면 생활개선회가 정성껏 준비한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식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독수 군수는 “올해 치즈축제는 단순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를 넘어 주민과 지역상권이 함께 웃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축제로 새롭게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읍을 하나의 축제공간으로 연결해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 일반계고 첫 IB DP 월드스쿨 인증

전주여고, 개교 100주년 맞아 국제교육 새 이정표

전주여자고등학교가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 프로그램(DP)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교육 역량을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전주여고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IB DP(고등학교 과정)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지평선고등학교에 이어 도내 두 번째 인증이며,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첫 사례다.

1926년 개교한 전주여고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도내 대표 명문 여학교다. 학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육을 접목해 새로운 100년을



전주여자고등학교가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IB DP는 학생들의 탐구 과정과 성장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 과정과 역량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반영되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논·서술형 평가와 사고력, 표현력을 중시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과도 맞물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진학과 미래 역량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전주여고 교장은 “개교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IB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호성 교육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IB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학생 주도의 탐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